

은행

은행



정태준 CFA

02 3770 5585

taejoon.jeong@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KB 금융	BUY (M)	70,000 (M)
신한지주	BUY (M)	48,000 (M)
하나금융지주	BUY (M)	61,000 (M)
우리금융지주	BUY (M)	18,000 (M)
기업은행	BUY (M)	15,000 (M)
BNK 금융지주	BUY (M)	10,000 (M)
DGB 금융지주	BUY (M)	10,500 (M)
JB 금융지주	HOLD (M)	11,000 (M)

대출 회복의 선결 조건 [3월 monthly]

부담 요인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성장률 회복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능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사는 대출성장률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짚어보았다. 먼저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아직도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반등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는 곧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은행들이 대출성장률을 통제할 유인이 강해진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최근에 은행들이 제시한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위험가중자산 성장률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기회 요인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1) 은행들의 대출 태도 완화와 2) 대출 규제 완화, 3)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정부와 당국이 은행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사업장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 차주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는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 지난 6일에는 당국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 내용을 발표했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또한 대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Monthly review

시장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은행업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판단하는데, 1) 시장금리는 반등했으나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추가 긴축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2) 추가 긴축이 이루어져도 은행업의 펀더멘털 개선 폭이 크기는 어렵다는 점, 3)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취약차주와 공유하는 부실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4) 그리고 연초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주주환원 이벤트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목표 CET1비율을 상회하더라도 급격한 주주환원 확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초와 같은 주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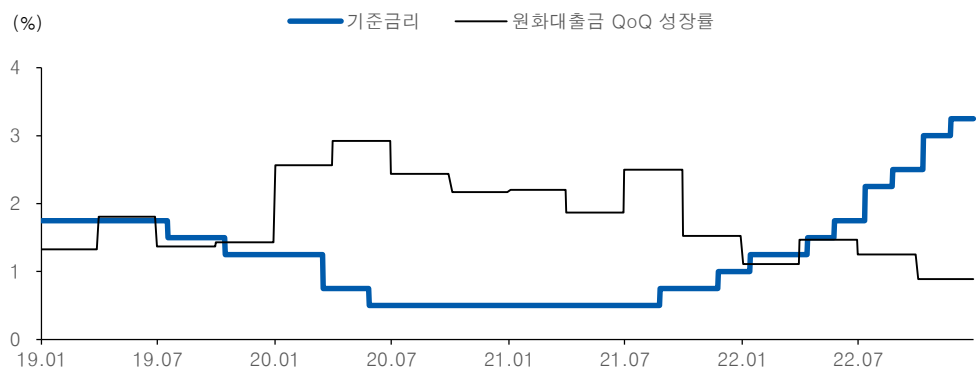
* 은행 monthly는 매월 둘째 월요일에 나옵니다

1. 부담 요인

아직도 높은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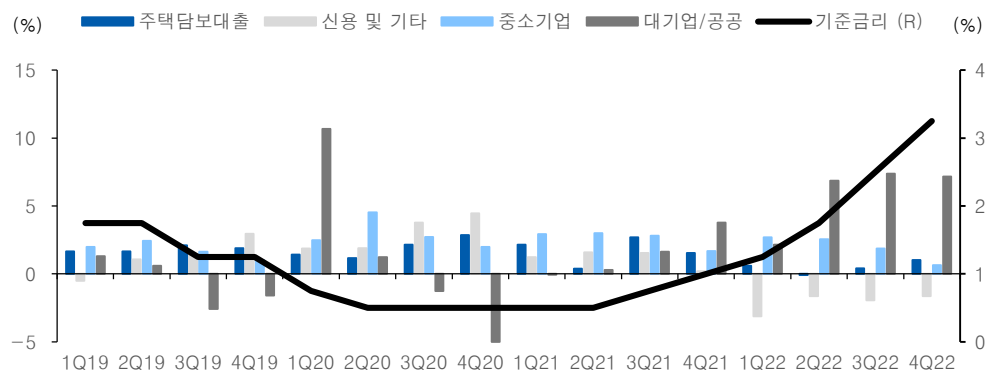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의 성장률 회복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사는 대출성장률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짚어보았다. 먼저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아직도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대출성장률은 기준금리의 절대 수준과 역의 관계를 보여왔고, 특히 최근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아직도 이전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다. 은행들은 대기업대출을 통해 이를 방어하고 있으나 전체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그림 1] 기준금리 vs. 커버리지 합산 은행 원화대출금 QoQ 성장률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기준금리 vs. 커버리지 합산 은행 대출 종류별 QoQ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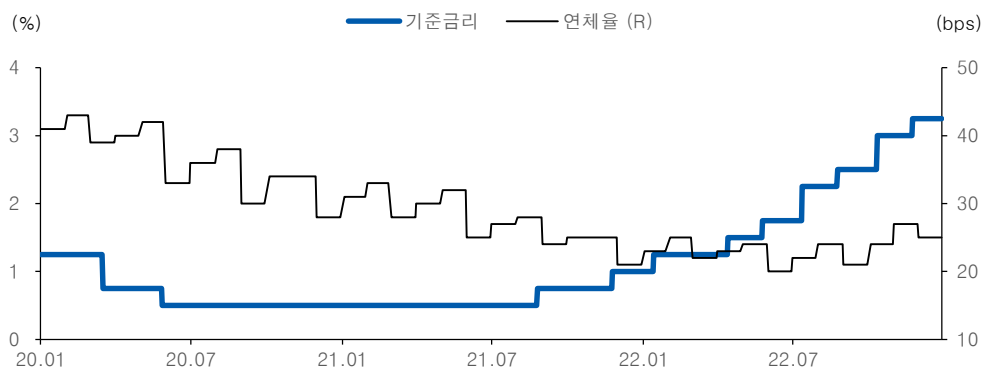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가계대출 연체율의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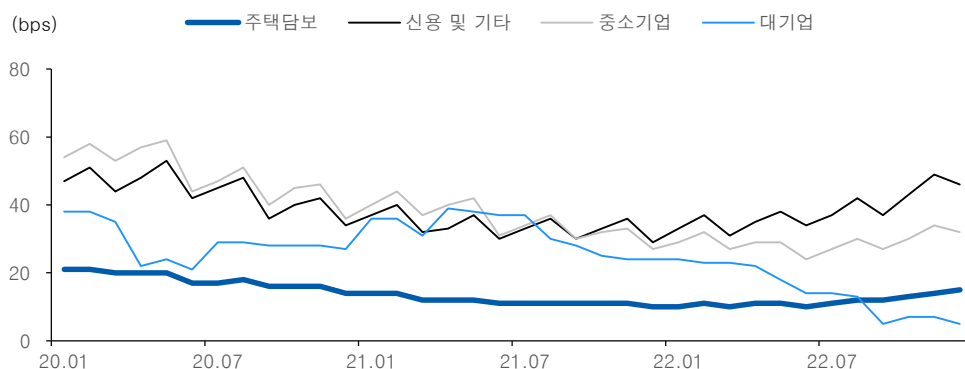
여기에 가계대출 연체율이 반등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최근 대기업대출 연체율의 급격한 하락 사례와 같이 모수의 변화에 기인한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모수가 반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점은 건전성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물론 아직까지 연체율의 절대 수준이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신용대출 연체율도 올라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 3년 간 은행들이 대규모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급격한 대손비용률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1) 당국의 선제 충당금 적립 요구가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고 2)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될수록 한계기업들의 존속 기간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대손비용률 역시 저점을 지났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 기준금리 vs. 은행업 합산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대출 종류별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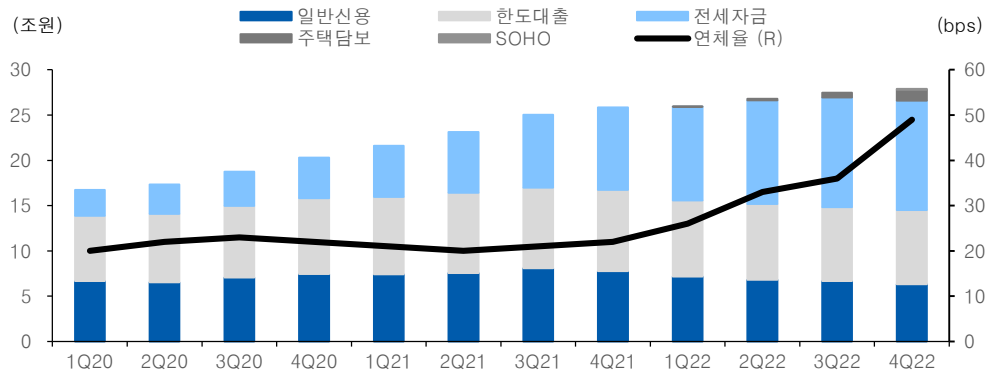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건전성 관리는 곧 대출성장률 통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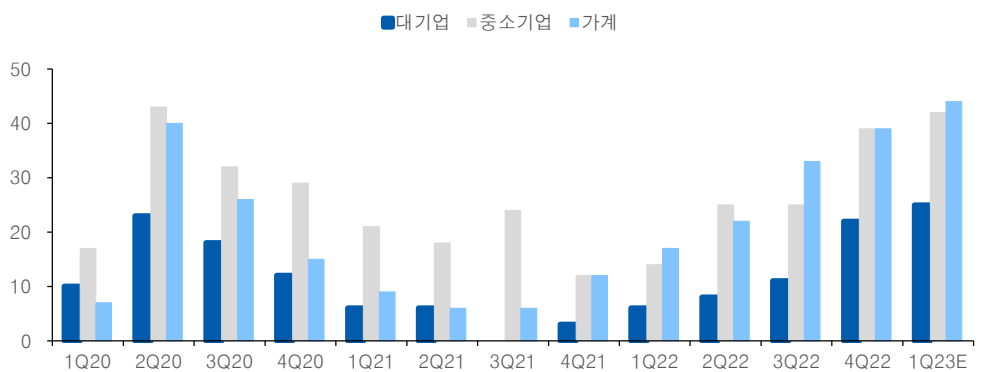
이는 곧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은행들이 대출성장률을 통제할 유인이 강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면, 중금리 대출 확대의 부작용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자 일반신용과 한도대출 잔액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에도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연체율이 저점을 기록한 2021년 2~3분기에 가장 낮았으나 이후 연체율과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분기 전망치는 전분기대비 추가 상승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5] 카카오뱅크 종류별 대출 잔액 vs.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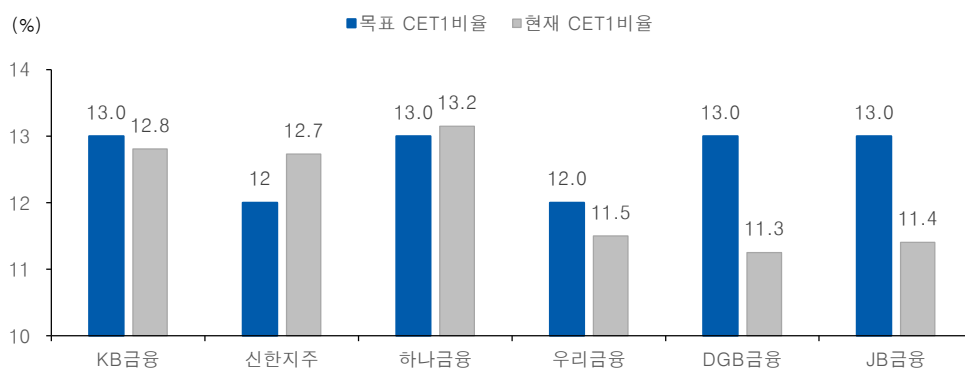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주환원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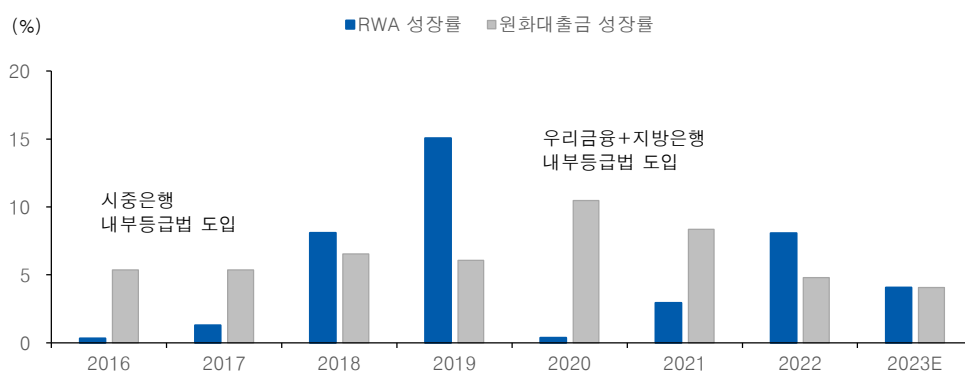
이에 더불어 최근에 은행들이 제시한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위험가중자산 성장률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위험가중자산 성장은 대체로 대출 증가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물론 M&A나 지분투자도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사가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대출성장률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위험가중자산은 자본비율의 분모이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 성장은 이익 증가 효과를 제외하면 자본비율 하락 요인인데, 은행들이 1) 목표 CET1비율에 빠르게 도달하고 2) 그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전과 같이 대출 확대를 촉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7] 은행별 목표 CET1 비율 vs. 2022년 CET1 비율



주: BNK 금융지주는 아직 목표 CET1 비율 미공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커버리지 합산 은행 위험가중자산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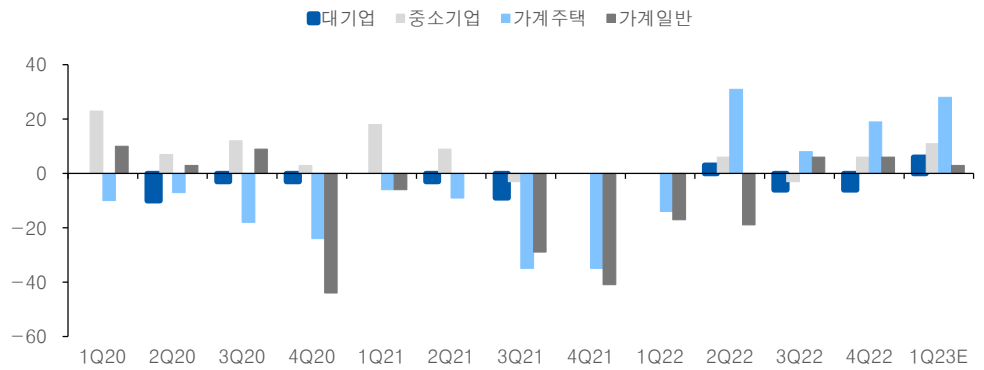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기회 요인

대출 태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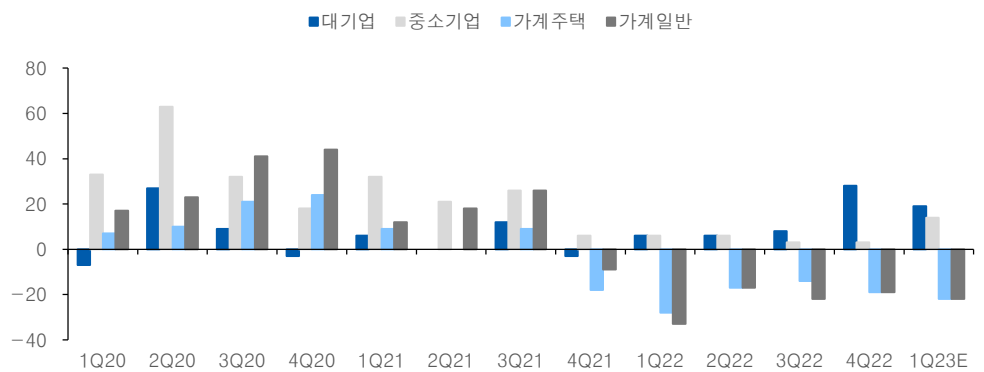
반면 기회 요인으로는 1) 은행들의 대출 태도 완화와 2) 대출 규제 완화, 3)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들 수 있다. 대출 수요는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카카오뱅크의 사례와 같이 은행들이 건전성이 높은 주택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를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당국이 은행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 사업장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 차주에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는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KB금융이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브릿지론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한다.

[그림 9]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수요지수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출 규제 완화

이에 더불어 지난 6일에는 당국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 내용을 발표했는데,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던 차주들의 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DSR이 완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진정한 기회 요인은 DSR 완화에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표 1]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내용

구분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금지 →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유지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금지 →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현행	1)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2)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3)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4)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	각종 제한 일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	대출 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개선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 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
요건	1)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선	대출 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의지

DSR 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와 당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이 대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은행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나 대출 규제 완화 외에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기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다수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방안들이 전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앞서 언급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 내용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표 2]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자 취득세 종과제도 완화
-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종과배제 연장(~'24.5)
-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를 '20년 이전 수준 환원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2. 주택공급기반 위착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 중 시행
- 기 발표 공급계획의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3.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시장·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
-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4.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국세) 폐지된 세제 혜택 복원, 의무임대기간 확대 시 추가 혜택
(금융)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
- 임대차 2법 개정여부·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 시 탄력적 공급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3]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시장 안정 방안

1. 금융시장 안정조치 보완 및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

- 「50조원+ α 」 기발표, 시장안정조치 적극 집행
- 금융규제 유연화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지원
- 한은의 시장안정조치 적기 실시
- 산은·수은 정부 현물출자를 통한 위기대응 역량 확충

2. 세제 지원, 국공채 발행 조절 등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

-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 국공채 발행물량 감축 등
 - * 환전제는 전기요금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22년 대비 발행규모 큰 폭 축소

3. 해외자금·투자유입 확대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
- 외국인 증권투자 촉진을 위한 범부처 합동 해외 로드쇼 개최
-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제도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표 4]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잠재리스크 대응 방안

구분	내용
가계	1. 부채관리: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대출 1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 등('22.7~)
	2. 채무조정: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대상 확대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추진 - 채무조정 활성화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
	3. 회생: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 회생법원 추가설치(수원·부산)
	4. 재기: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기업대표 연대보증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리자금(1.1조원)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경영정상화·재창업 등 지원
기업	1. 부실진단: 업종별 평가기준 마련 등 기업신용위험평가 정교화
	2. 재무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추진
	3. 회생: 중소기업 회생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 회생법원 추가설치(수원·부산)
	4. 재기: 회생 졸업기업 지원 강화, 기업대표 연대보증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리자금(1.1조원) 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경영정상화·재창업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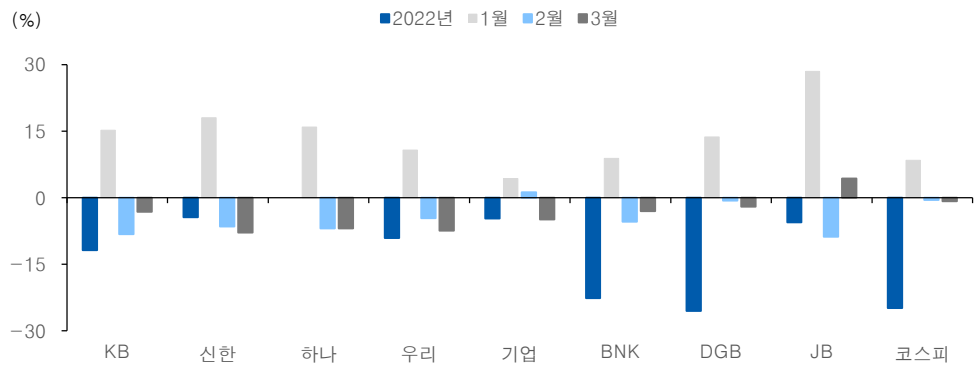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Monthly review

이벤트 종료 이후 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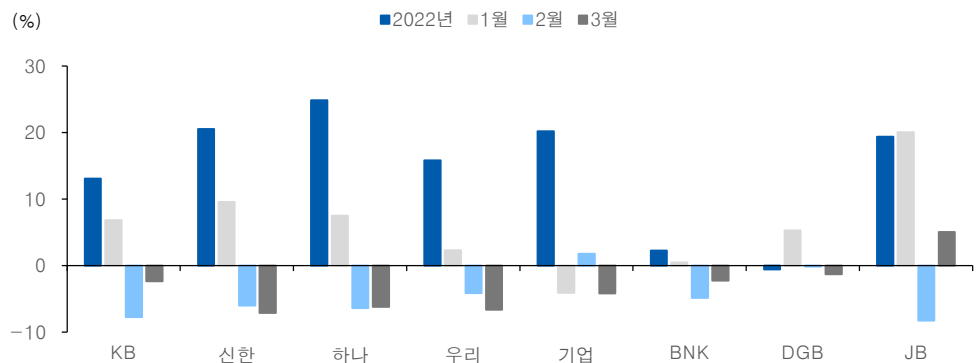
시장금리 반등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은행업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판단하는데, 1) 시장금리는 반등했으나 물가상승률의 둔화로 추가 긴축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2) 추가 긴축이 이루어져도 은행업의 펀더멘털 개선 폭이 크기는 어렵다는 점, 3)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취약차주와 공유하는 부실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4) 그리고 연초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주주환원 이벤트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목표 CET1비율을 상회하더라도 급격한 주주환원 확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초와 같은 주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1] 은행별 주가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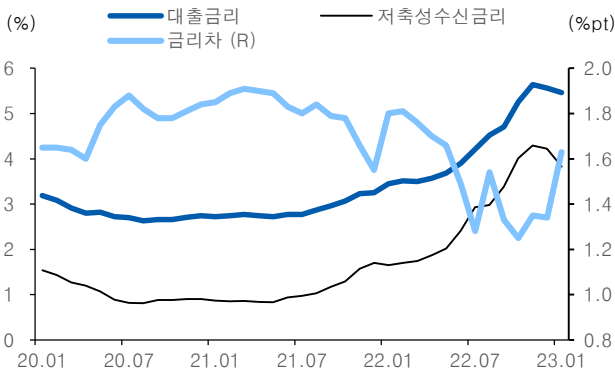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은행별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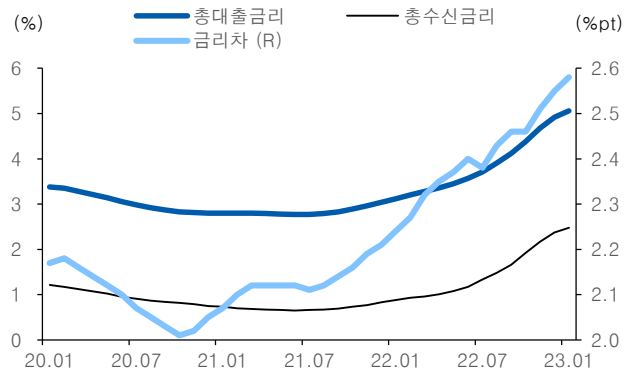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은행업 신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여·수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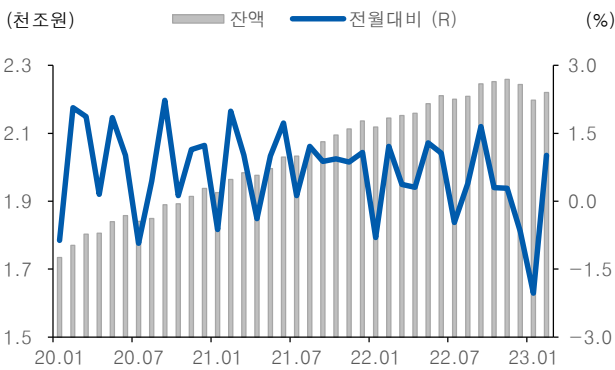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은행업 잔액 기준 가중평균 여·수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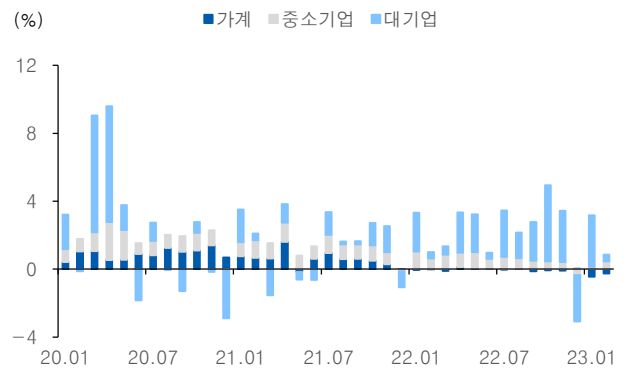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은행업 수신 잔액 vs. 전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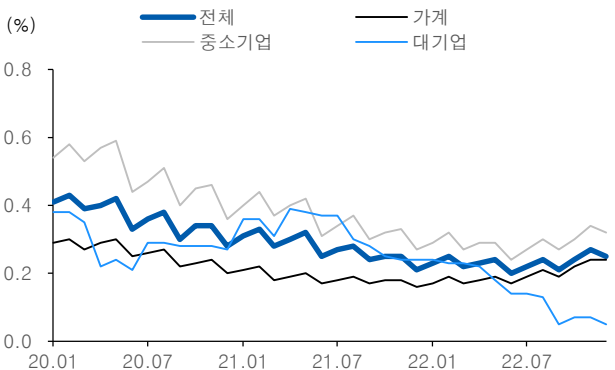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은행업 전월대비 대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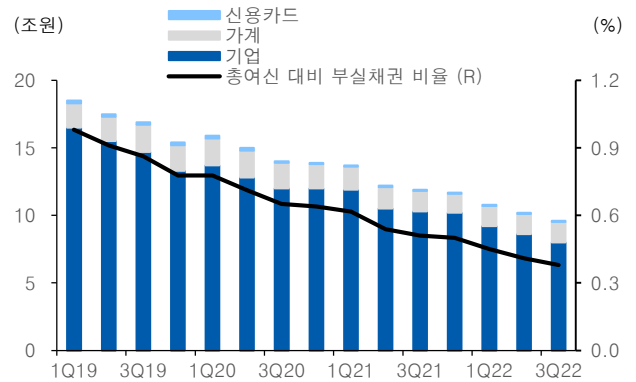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은행업 연체율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은행업 부실채권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Valuation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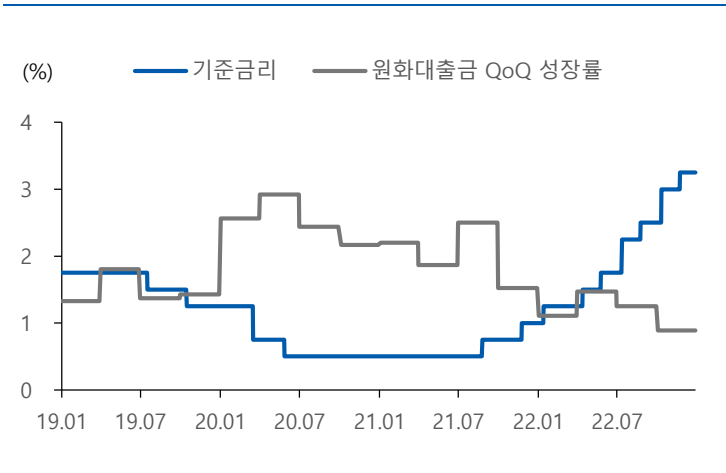
[표 5] 은행업 valuation table (단위: 배, %)

	KB 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기업은행	BNK 금융	DGB 금융	JB 금융
목표주가	70,000	48,000	61,000	18,000	15,000	10,000	10,500	11,000
목표 PBR	0.54	0.51	0.46	0.44	0.37	0.31	0.31	0.45
목표 PER	5.9	5.2	4.9	4.1	3.6	3.8	3.7	3.4
PBR								
2022P	0.39	0.39	0.34	0.29	0.26	0.21	0.22	0.34
2023E	0.39	0.34	0.32	0.25	0.26	0.19	0.20	0.38
2024E	0.38	0.33	0.30	0.25	0.25	0.18	0.19	0.37
PER								
2022P	4.5	4.0	3.4	2.7	2.8	2.6	2.9	2.6
2023E	4.3	3.7	3.4	2.5	2.4	2.5	2.7	3.0
2024E	4.2	3.9	3.4	2.5	2.4	2.5	2.7	3.0
ROE								
2022P	9.2	9.7	10.3	11.6	9.9	8.4	7.5	13.8
2023E	9.7	9.9	9.7	11.1	11.2	8.4	8.7	13.5
2024E	9.4	9.2	9.3	10.8	10.7	8.1	8.3	13.2
ROA								
2022P	0.65	0.70	0.68	0.68	0.67	0.61	0.46	1.03
2023E	0.67	0.71	0.63	0.66	0.75	0.61	0.52	1.03
2024E	0.65	0.66	0.60	0.65	0.72	0.59	0.49	1.01
배당수익률								
2022P	6.1	5.9	8.0	9.8	9.2	9.6	9.3	10.6
2023E	6.6	6.1	8.3	10.6	11.1	10.8	10.1	9.3
2024E	6.9	6.1	8.6	11.1	11.7	11.2	10.2	9.8
배당성향								
2022P	26.0	22.8	26.9	26.0	25.5	25.0	27.1	27.0
2023E	26.9	23.3	27.7	27.0	26.1	26.3	27.3	27.7
2024E	27.9	24.4	28.7	28.1	27.3	27.0	27.6	28.7
주당배당금								
2022P	2,950	2,065	3,350	1,130	900	625	650	835
2023E	3,300	2,200	3,500	1,200	1,100	700	780	900
2024E	3,450	2,200	3,650	1,250	1,150	725	790	950

주: 기업은행은 아직 배당 발표 전, 배당 지표는 보통주 기준,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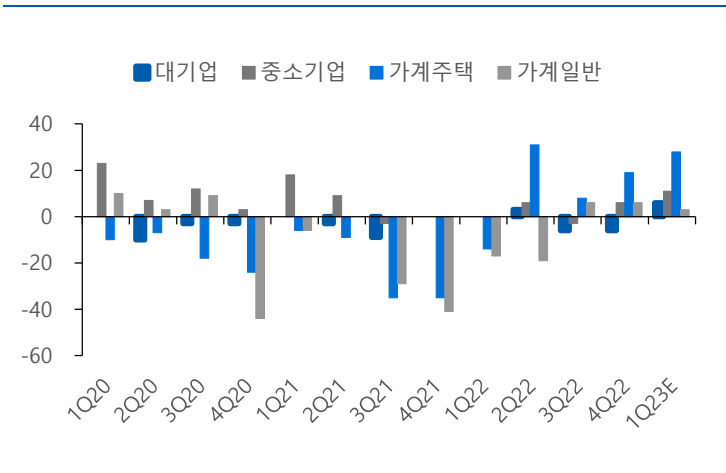
Key Chart

**기준금리 vs. 커버리지 합산
은행 원화대출금 QoQ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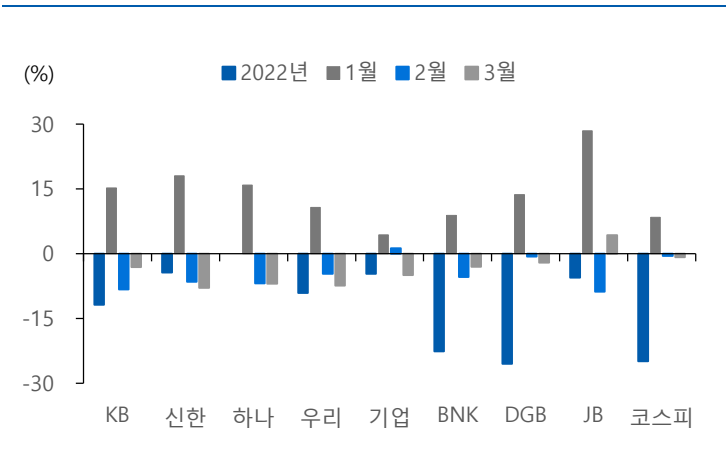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은행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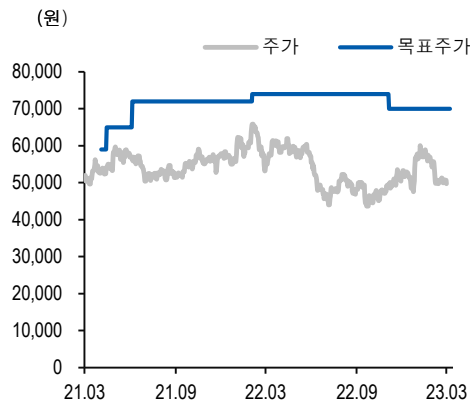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은행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B 금융 (1055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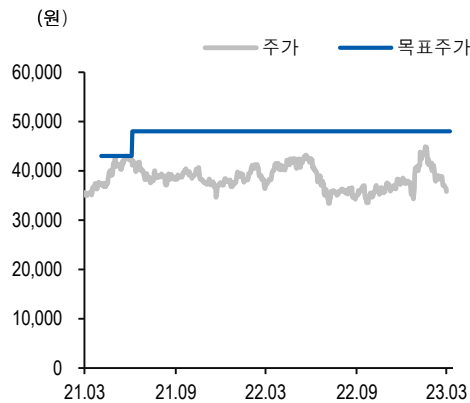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70,000	1년		
2022-11-14	BUY	70,000	1년		
2022-02-11	BUY	74,000	1년	-28.43	-12.03
2021-06-14	BUY	72,000	1년	-23.02	-9.03
2021-04-23	BUY	65,000	1년	-12.10	-8.15
2021-01-11	BUY	59,000	1년	-18.17	-4.7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신한지주 (05555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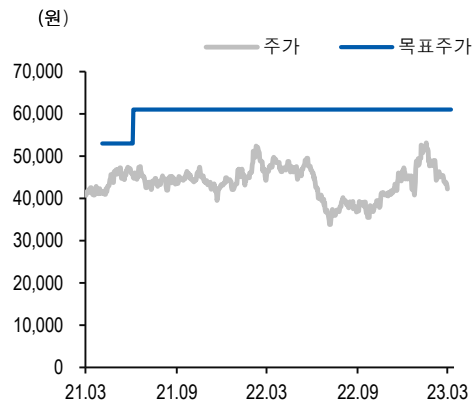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48,000	1년		
2022-06-14	1년 경과 이후		1년	-22.34	-6.46
2021-06-14	BUY	48,000	1년	-19.85	-6.46
2021-01-11	BUY	43,000	1년	-11.99	0.00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하나금융지주 (0867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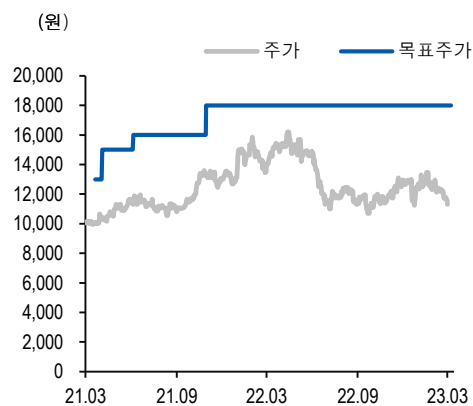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61,000	1년		
2022-06-14	1년 경과 이후		1년	-31.50	-12.95
2021-06-14	BUY	61,000	1년	-28.06	-12.95
2021-04-12	BUY	53,000	1년	-14.91	-1.13
2021-01-11	BUY	49,000	1년	-21.00	-12.6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우리금융지주 (31614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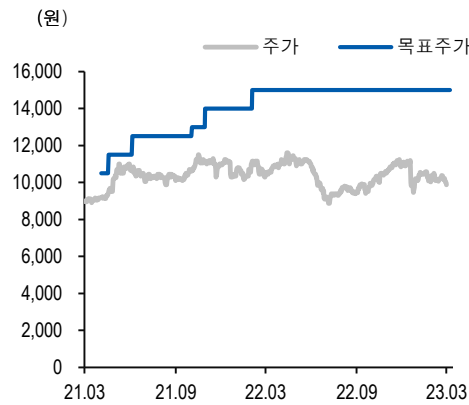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18,000	1년		
2022-11-08	1년 경과 이후		1년	-30.95	-25.11
2021-11-08	BUY	18,000	1년	-27.11	-10.00
2021-06-14	BUY	16,000	1년	-17.23	1.25
2021-04-12	BUY	15,000	1년	-27.11	-22.33
2021-01-11	BUY	13,000	1년	-24.84	-18.08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기업은행 (0241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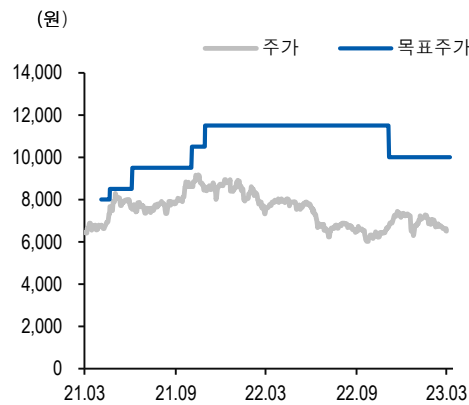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15,000	1년		
2023-02-11	1년 경과 이후		1년	-32.14	-30.00
2022-02-11	BUY	15,000	1년	-30.87	-22.67
2021-11-08	BUY	14,000	1년	-25.48	-17.14
2021-10-12	BUY	13,000	1년	-14.53	-11.54
2021-06-14	BUY	12,500	1년	-17.21	-13.20
2021-04-27	BUY	11,500	1년	-8.79	-4.35
2021-01-11	BUY	10,500	1년	-16.47	-10.5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BNK 금융지주 (1389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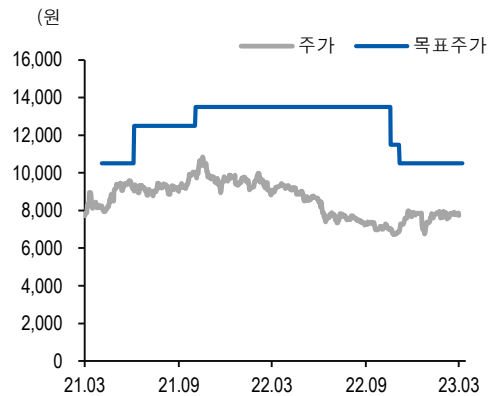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10,000	1년		
2022-11-14	BUY	10,000	1년		
2022-11-08	1년 경과 이후		1년	-42.12	-41.83
2021-11-08	BUY	11,500	1년	-34.73	-22.17
2021-10-12	BUY	10,500	1년	-26.61	-12.67
2021-06-14	BUY	9,500	1년	-17.76	-6.95
2021-04-30	BUY	8,500	1년	-6.91	-2.47
2021-04-12	BUY	8,000	1년	-13.81	-8.38
2021-01-11	BUY	7,300	1년	-15.40	-5.75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DGB 금융지주 (1391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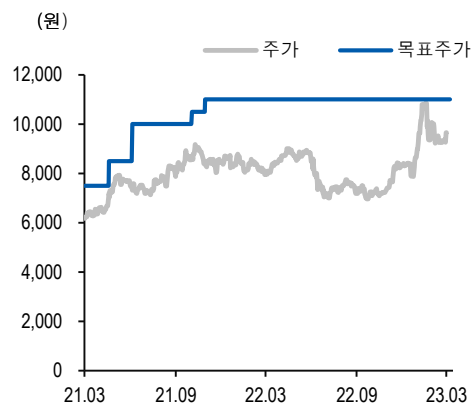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BUY	10,500	1년		
2022-11-14	BUY	10,500	1년		
2022-10-28	BUY	11,500	1년	-40.89	-39.39
2022-10-12	1년 경과 이후		1년	-47.38	-46.00
2021-10-12	BUY	13,500	1년	-35.55	-19.63
2021-06-14	BUY	12,500	1년	-25.24	-13.20
2021-04-12	BUY	10,500	1년	-14.91	-8.67
2021-01-11	BUY	9,400	1년	-19.95	-4.68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JB 금융지주 (17533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3-03-13	HOLD	11,000	1년		
2023-02-13	HOLD	11,000	1년		
2022-11-08	1년 경과 이후		1년	-20.68	-1.36
2021-11-08	BUY	11,000	1년	-25.67	-1.36
2021-10-12	BUY	10,500	1년	-22.34	-12.67
2021-06-14	BUY	10,000	1년	-21.98	-10.70
2021-04-28	BUY	8,500	1년	-10.11	-6.71
2021-01-11	BUY	7,500	1년	-18.76	-6.00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0
Buy(매수)	91.9
Hold(중립)	8.1
Sell(비중축소)	0.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3-03-09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정태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